

붓물처럼 쏟아지는 통속 정치소설

최근 정치적 관심에 편승... 섹스와 폭력으로 흥미 유발

정치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저작물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일부 대형서점에서는 정치소설 코너를 따로 마련해놓고 있을 만큼 이들 정치소설을 표방하는 저작물들은 수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정치소설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저작물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상업적 성공을 위한 포장

국내 최초의 본격 정치소설은 고원정씨의 《최후의 계엄령》. 예술 장르 전반에 걸쳐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소설은 금기를 깨뜨렸다는 측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은 우리 정서에 부합하여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를 계기로 일부 출판사들이 상업적 성공을 노리고 저급한 정치소설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과거 같으면 추리소설 코너에 섞여 있을 법한 소설에서부터 길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통속소설들이 정치소설로 둔갑했고, 심지어는 다큐멘터리로 분류될 법한 기록물까지 일명 '실록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소설 코너에 등장하기에 이른 것.

최근 서점가에 등장한 이들 소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서출판 시아에서 펴낸 《풀잎은 바람에 눕지 않는다》(노가원)가 모두 일곱권에 걸쳐 79~80년의 격동기를 담고 있다. 책머리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노가원씨는, "당시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자리에 서야 했던 계엄군(사병)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손발 노릇을 해야 했던 그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찍힌 것이다"고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지한 목소리는 소설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당시 암울한 사회분위기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정서에 관한 묘사는 당시에 불리던 유행가 가사를 소설 곳곳에 늘어놓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현대사를 장식한 큼직한 사건들을 신문기사처럼 풀어쓰고 그 속에 작가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을 대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정치소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직된

사회분위기가 풀리자 정치소설임은

자처하며 붓물처럼 쏟아져나온

저작물들이 정치소설이라는

말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일부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출판사와 작가들이

부른 결과로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있다.

도서출판 시아에서 연이어 내놓은 《보안사》(노가원) 역시 위에서 언급한 《풀잎은...》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소설. 이같은 소설들이 서점가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문학평론가 고영직씨는, "정작 입을 열어야 할 시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사회분위기가 변모하자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당시 암울했던 사회상을 발빠르게 상품화하여 문학이라는 미명하에 날림으로 포장해놓은 저작물들이 범람하는 세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불쾌감을 피력한다.

'통일공화국 예측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대통령 김대중》(법조사)은 추리소설에 가깝다. 존 그리샴을 연상케 하는 전개양상을 보이는 이 소설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구성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어느날 호텔에서 한 중년 남자가 죽고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장관부인이라는 여자가 연루된다. 이 살인 사건을 뒤쫓는 과정에서 하나둘 미스테리가 벗겨져 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남자를 죽인 자는 전문적인 청부업자. 이 청부업자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정치세력이다.

소설 뒷부분에 이르러 사건이 어떤 정치적 배경과 연루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은 추리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결말. 다른 점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암투가 비중있게 다뤄진다는 것이다. 적당한 간격



최근의 '정치소설' 붐에 편승한 일부 출판물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으로 등장하는 섹스와 폭력을 통해 흥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소설을 마치 본격 정치소설인 양 포장하고 있는 까닭은 상업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정치소설 위상

비교적 정치소설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소설로, 본격 정치소설임을 내세우고 있는 《L의 비망록》(김병년, 넥서스)이 있다. 이 소설은 95년 현재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한 가상정치소설. 북만주처럼 얽힌 정치상황을 풀어내고 있는 이 소설은, 미국 CIA와 안기부, 그리고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정치지도자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며, 북핵문제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가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감 있는 인물과 소재를 다룬 이 소설은 오락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본격 정치소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학적 성과를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설 김대중》(허수정, 무당)은 전기적 소설. 파란많은 삶을 살아온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삶의 궤적을 뒤쫓고 있는 까닭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선정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으며 사실 그 자체가 주는 무게와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기록 나열

차원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라는 소설 형태가 가지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해 평면적인 구성으로 일관한다.

"정치소설은 문학적 입장에서 사회 자체가 가진 정치적 구조까지 규명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내면의 권력욕을 포괄하는 깊이 있는 천착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현실 정치에 대한 개선점 혹은 그 의지를 아울러 담고 있어야 한다."

고원정씨는 정치소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말하면서 작가정신의 부재를 꼬집는다. 사회적 금기가 깨진 이후 정치소설을 자처하며 대거 등장한 저급한 저작물들이 정치소설이라는 말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현재 정치소설 환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선다. 내 소설 역시 그 무분별하고 통속적인 소설들과 한물에 고기처럼 취급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고원정씨는 현 세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림 기자